

| 보도 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8. 12.(금) |                                          |
|---------------|-------------------|------------|-----------------|------------------------------------------|
| 담당 부서<br><총괄> | 국무조정실<br>사회복지정책관실 | 책임자<br>담당자 | 팀 장             | 서현정 (044-200-2293)<br>김동빈 (044-200-2289) |
| 담당 부서<br><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br>사회전략팀 | 책임자<br>담당자 | 팀 장             | 김도균 (044-202-1720)<br>권고운 (044-202-1714)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차질 없는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마련

-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조제기관 확대, 의약품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의료진의 적극 처방을 지원
- 파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달까지 라게브리오 약 14만 명분 우선 도입 예정

### ◆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8.11.기준)이며, 7월 운영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 독려 등 조치 실시
-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상담 센터(173개소, 8.12.기준) 운영
- 지정 전담 병상은 현재 7,080개, 일반병상은 7,225개 운영 가능

### ◆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

-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 협의체를 확대하여 지자체-지역 의료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 ◆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 전체 감기약의 공급 역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는 수준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일부 조제용 의약품의 수급은 원활하지 않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

-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특소프로펜 등)의 정보를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

#### ◆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공문 등을 통한 방역지침 안내, 대형 콘서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방역 협조 요청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1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으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기관 확대 및 수급·공급계획 등을 알리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개소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8월 초에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특히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2만 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도입할 예정이다.
- 한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적극 처방을 독려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치료, 병상 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이다.
  - 대책 수립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대응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의료 내 진료·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 8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를 확보하였다.
    - 특히,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 약 1만 개소('22.6월 기준)의 50% 이상인 6,123개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 중이다.
    - \*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6,561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8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 △7.18. 기준 6,492개소 및 △7.18. 이후 참여기관 69개소(일부 시·도에서 포함)

- 점검결과, 대상 기관의 90% 이상인 5,909개소는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호흡기환자 진료 ②코로나 진단검사 ③먹는 치료제 처방 ④확진자 대면 진료

-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행 기능에 맞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등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진료를 받아 조기에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PCR 검사 후 지역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명단,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등

- 코로나·비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진료 공백 없이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지자체 응급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 간 신속 대응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 시·도 단위의 소방,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재택치료관리반 간 연락망 운영

- 또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과 휴일 등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상담센터(173개소 8.12.기준)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치료병상의 경우 지정병상은 7월 20일 대비 약 1,500병상을 추가 가동중으로(7,080병상, 8.12.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0만 명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일반병상 또한 약 7,200병상이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확보된 지정병상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수용 입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부적정한 병상 활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며, 재유행 규모 및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병상 외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일반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총 330개 병원에서 7,225개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며, 4,424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여 병원 및 병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나가고 있다.
- 현재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번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자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협의체 구성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건 담당 실·국장과 지역 의사회장 등 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 또한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공유와 협조 요청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은 각 지자체 및 지역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하게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4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전체 감기약의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하였다.
-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부족이 확인된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록소프로펜, 텍시부프로펜 성분 의약품 등)의 정보를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 5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규모 공연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대중음악 공연 참석 후 코로나 19 확진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콘서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와 공문 발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주요 대규모 공연과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정부는 9월 말까지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함께 손 소독제 비치,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 6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 8월 11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1병상이 증가한 7,10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0.6%,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3%이다.

#### < 8.11.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구분<br>(개, %) | 위중증(危重症)       |               |                | 준중증(準-重症)      |                 |                | 중등증(中等症)병상     |               |                | 무증상·경증(輕症)  |              |             |
|--------------|----------------|---------------|----------------|----------------|-----------------|----------------|----------------|---------------|----------------|-------------|--------------|-------------|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 준-중환자병상        |                 |                | 감염병 전담병원       |               |                | 생활치료센터      |              |             |
|              | 보유<br>(증감)     | 사용<br>(가동률)   | 가용<br>(증감)     | 보유<br>(증감)     | 사용<br>(가동률)     | 가용<br>(증감)     | 보유<br>(증감)     | 사용<br>(가동률)   | 가용<br>(증감)     | 보유<br>(증감)  | 사용<br>(가동률)  | 가용<br>(증감)  |
| 전국           | 1,764<br>(+16) | 720<br>(40.8) | 1,044<br>(-26) | 2,969<br>(+15) | 1,798<br>(60.6) | 1,171<br>(-69) | 2,256<br>(+20) | 980<br>(43.4) | 1,276<br>(-10) | 116<br>(+0) | 12<br>(10.3) | 104<br>(+3) |
| 수도권          | 1,214<br>(+8)  | 498<br>(41.0) | 716<br>(-37)   | 1,983<br>(+13) | 1,319<br>(66.5) | 664<br>(-49)   | 1,040<br>(+0)  | 480<br>(46.2) | 560<br>(-9)    | 116<br>(+0) | 12<br>(10.3) | 104<br>(+3)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16           | 100         |
| 서울           | 245            | 107           | 138            | 374            | 256             | 118            | 268            | 107           | 161            | 0           | 0            | 0           |
| 경기           | 611            | 269           | 342            | 1,029          | 741             | 288            | 421            | 199           | 222            | 0           | 0            | 0           |
| 인천           | 358            | 122           | 236            | 580            | 322             | 258            | 351            | 174           | 177            | 0           | 0            | 0           |
| 비수도권         | 550<br>(+8)    | 222<br>(40.4) | 328<br>(+11)   | 986<br>(+2)    | 479<br>(48.6)   | 507<br>(-20)   | 1,216<br>(+20) | 500<br>(41.1) | 716<br>(-1)    | 0<br>(+0)   | 0<br>(+0)    | 0<br>(+0)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           | 46             | 24            | 22             | 39             | 24              | 15             | 74             | 28            | 46             | 0           | 0            | 0           |
| 충청권          | 105            | 59            | 46             | 179            | 82              | 97             | 451            | 143           | 308            | 0           | 0            | 0           |
| 호남권          | 155            | 49            | 106            | 234            | 130             | 104            | 303            | 161           | 142            | 0           | 0            | 0           |
| 경북권          | 88             | 32            | 56             | 201            | 109             | 92             | 127            | 50            | 77             | 0           | 0            | 0           |
| 경남권          | 134            | 56            | 78             | 299            | 127             | 172            | 219            | 106           | 113            | 0           | 0            | 0           |
| 제주           | 22             | 2             | 20             | 34             | 7               | 27             | 42             | 12            | 30             | 0           | 0            | 0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위중증·사망자】

- 8월 1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전일 대비 35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58명이고, 60세 이상이 53명(91.4%)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956명이고, 확진자(128,7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5%이며, 최근 1주간 18.8%~22.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9,752명으로, 수도권 63,345명, 비수도권 66,407명이다. 현재 694,64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12. 0시 기준)

###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가 있다. (8.11.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8.12. 0시 기준)

- <붙임> 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22.8.12. 기준)  
2. 60대 이상 먹는치료제 시도별 주간 투여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

|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br>사회전략팀        | 책임자 | 팀장  | 김도균 | 044-202-1720 |
|               |                          | 담당자 | 사무관 | 권고운 | 044-202-1714 |
| 담당 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br>환자관리팀        | 책임자 | 팀장  | 이형민 | 043-719-9100 |
|               |                          | 담당자 | 연구관 | 김정연 | 043-719-9101 |
| 담당 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br>자원지원팀        | 책임자 | 팀장  | 김옥수 | 043-719-91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호 | 043-719-9152 |
| 담당 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br>의료대응전략팀      | 책임자 | 팀장  | 김일열 | 044-202-18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열 | 044-202-1835 |
| 담당 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br>재택치료팀        | 책임자 | 팀장  | 방영식 | 044-202-29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강봉길 | 044-202-1855 |
| 담당 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br>환자병상 · 치료시설팀 | 책임자 | 팀장  | 곽순헌 | 044-202-179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현 | 044-202-1788 |
| 담당 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br>방역총괄팀        | 책임자 | 팀장  | 방석배 | 044-202-17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혁 | 044-202-1759 |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br>의약품관리과       | 책임자 | 과장  | 오정원 | 043-719-2651 |
|               |                          | 담당자 | 사무관 | 성주희 | 043-719-2652 |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br>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장  | 안미란 | 044-203-2461 |
|               |                          | 담당자 | 사무관 | 조영권 | 044-203-2464 |

- ①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처방 확대) (현행)상증·중병 등 병원급 외래처방이 특정 과목, 별도 창구 개설 형태로 운영  
→ (개선)일반의료체계 전환과 관련, 병원의 전체 외래에서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토록 하여 평소 환자를 진료해오던 의사가 먹는치료제도 처방
- ②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대에 따라 담당약국 現 1,082개소에서 2,175개소로 확대 조치 (8.11 기준, 지속 확대 예정)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인근으로 담당약국 추가지정하여 환자 접근성 제고
- ③ (고위험시설 처방률 점검) 시도별 요양병원·시설 집단발생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점검  
- 시도 및 「요양병원 감염병 일일상황점검 시스템」의 요양병원·시설 등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매주 점검)
- ④ (자가점검표 제작·배포) 의료기관에 자가점검표(인쇄물) 제공하여 DUR외에 환자들이 일반약, 건강상태 등 자기기입식 정보제공  
- 자가점검표에 환자의 투약의사 표시 등으로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
- ⑤ (라게브리오 활용도 제고) 간질환·신질환 등 팩스로비드 처방제한 사항에 따른 처방불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를 적극 처방  
\* (홍콩) 환자 사망위험 라게브리오 47% 감소, 팩스로비드 67%감소 ('22.2.22~4.26, 40,776명 분석)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삼킴곤란 환자에 대하여 라게브리오 현탁액 형태(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의 활용사례 제시  
\* (호주, 대만) 캡슐 삼킬 수 없는 환자에 대상 의료진 판단하에 라게브리오 현탁액 활용방안 안내하는 처방가이드라인 제시  
- 라게브리오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8월초 계약 물량분(팩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중 라게브리오 14.2만명분 우선 도입(8~9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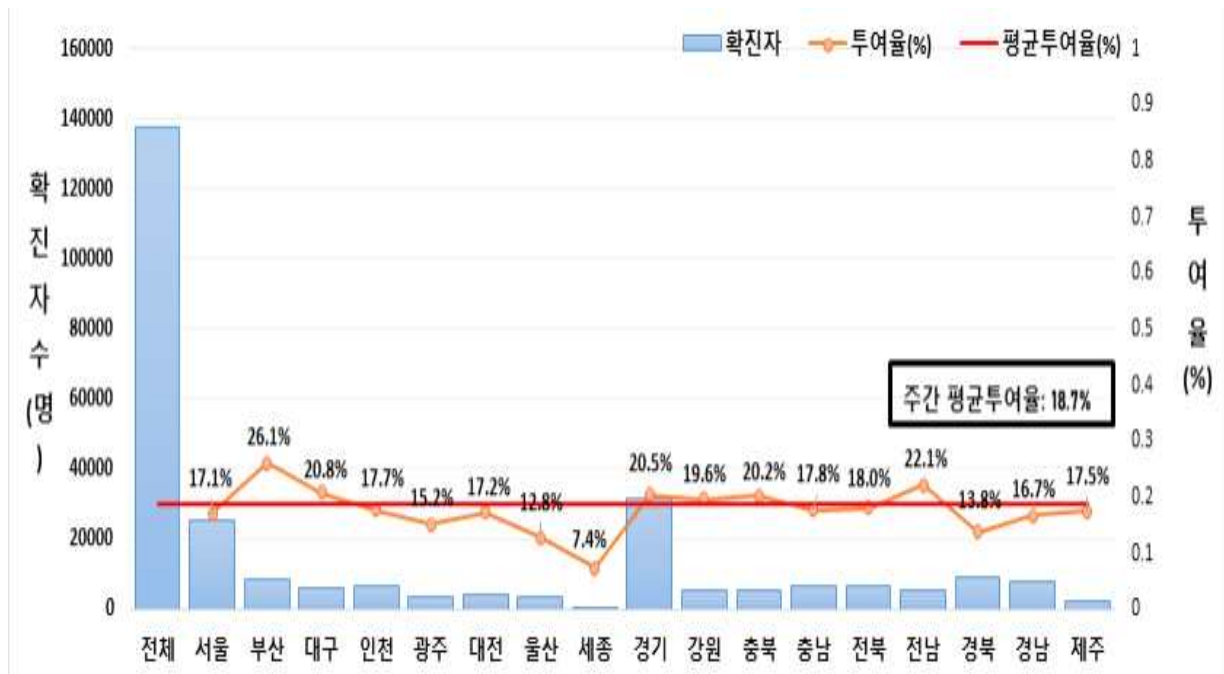
- ⑥ (재고관리) 패스트트랙 시설 즉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보유물량 상시 재고관리 및 의료기관·약국의 충분한 재고보유 추진
- \* 주 단위로 먹는 치료제 공급기관 수급 및 통계관리, 시도별 먹는 치료제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 제고 조치
- ⑦ (처방가이드라인 활용성 제고) 처방경험이 많은 의료진 직접 집필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세부적인 처방가이드라인\* 마련(의협)
- \* 연령별 처방기준,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팩스로비드 금기사항 고려, 환자상태 따른 투여 등 내용 마련
  - 처방 경험 없는 의료진에게 의료인 눈높이에서 처방대상별 기준, 병용금지 약품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등 우려사항 해소
- ⑧ (교육·홍보·안내) 먹는치료제 안전한 처방을 위한 의료진 교육, 정보제공 지속 및 탁자형 팜플렛·포스터 등 지속 홍보
-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7,743개소) 교육 기 실시(7월), ▲ 교육 영상 제작·배포(8월2주), ▲ 요양병원·시설 등(2.4만개소) 포스터(고위험군)·처방 가이드 배포(업체를 통하여 전 기관 일괄 배송, 8.4.~)

## 붙임 2

## 60대 이상 먹는치료제 시도별 주간 투여 현황



< 60대 이상 먹는 치료제 시도별 주간 투여 현황(2022년 31주, 7.31~8.6)>



\* 코로나19 확진자 지역구분 :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시도

\*\* 치료제 투여자수: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에 각 시도별 사용량으로 추정

□ 주간 먹는치료제 투여자 25,687명, 투여율 18.7%(지난주 대비 1.7% 상승)

< 시도별 60세 이상 주간 처방량, 7.31~8.6 >

| 시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확진자 | 137,439 | 25,475 | 8,750 | 5,987 | 6,460 | 3,276 | 4,334 | 3,214 | 703 | 31,557 | 5,252 | 5,162 | 6,544 | 6,436 | 5,360 | 8,906 | 7,982 | 2,041 |
| 투여자 | 25,687  | 4,361  | 2,281 | 1,243 | 1,142 | 498   | 746   | 410   | 52  | 6,455  | 1,029 | 1,045 | 1,163 | 1,161 | 1,187 | 1,225 | 1,332 | 357   |
| (%) | 18.7    | 17.1   | 26.1  | 20.8  | 17.7  | 15.2  | 17.2  | 12.8  | 7.4 | 20.5   | 19.6  | 20.2  | 17.8  | 18.0  | 22.1  | 13.8  | 16.7  | 17.5  |

< 시도별 60세 이상 주간 처방량, 7.24~7.30 >

| 시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확진자 | 94,757 | 19,050 | 5,897 | 3,677 | 4,452 | 2,247 | 2,664 | 2,386 | 505  | 22,544 | 3,267 | 3,440 | 4,265 | 4,008 | 3,346 | 5,629 | 5,414 | 1,966 |
| 투여자 | 16,082 | 3,029  | 1,235 | 754   | 788   | 419   | 446   | 300   | 69   | 3,671  | 676   | 745   | 646   | 725   | 681   | 722   | 890   | 286   |
| (%) | 17.0   | 15.9   | 20.9  | 20.5  | 17.7  | 18.6  | 16.7  | 12.6  | 13.7 | 16.3   | 20.7  | 21.7  | 15.1  | 18.1  | 20.4  | 12.8  | 16.4  | 14.5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